



#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

구영초 2-1 우수민

땡땡땡 드디어 종이 울렸다.

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.

친구들과 나는 신이 났다.

오늘 급식은 핫도그다.

냠냠 맛있다.

오늘도 나는 선생님과 영양 선생님에게

사랑을 듬뿍 받으며

쑥쑥 자란다.

